

“차, 11월에 가장 쌉니다” 車업계 ‘코세페’ 동참

11~30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국내 완성차업체가 ‘연중 최대 수준의 할인’을 내걸고 국내 최대 쇼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동참한다. ‘2023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쇼핑 축제로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진행, 2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다.

◇현대차, 캐스퍼 최대 17% 할인=현대자동차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23개 차종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전기차 3개 차종을 포함한 승용·RV 21개 차종 2만3000대 및 상용 2개 차종 약 1500대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다.

주요 차종별로 ▲캐스퍼 최대 17% ▲코나 최대 200만원 ▲팰리세이드 최대 10% ▲그랜저 최대 400만원 ▲제네시스 G80 최대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상용 차량은 ▲파비스 최대 500만원 ▲마이티 최대 400만원 할인 등이다.

상용 차량은 할인 외에도 ▲파비스 정상 금리 기준 1.5%포인트 인하 ▲마이티 2.9%(36개월 이하)의 저금리로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전기차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인 ‘EV 세일 페스타’의 제조사 할인 혜택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200만원 증가된다. ▲아이오닉 5 최대 600만원 ▲아이오닉 6 최대 600만원 ▲코나EV 최대 400만원의 구매 혜택이 제공된다.

현대차가 진행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할인 프로그램은 지난 1일부터 준비된 수량 2만4500대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계약으로 진행된다.

현대차, 캐스퍼 최대 17% 할인 등 23개 차종 2만4500여대 할인

기아 8개 차종 최대 700만원...KG모빌리티·르노코리아·쉐보레도

◇기아, 최대 700만원까지 차량 할인=기아 역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올해 최대 수준의 할인 혜택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30일까지 8개 차종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기아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통해 K5(HEV 포함), 카니발(카니발 하이리무진 포함), 봉고EV 차종 6000대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다. 또 기존 EV 세일페스타 대상 차종인 EV6, 니로EV, 니로 플러스는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

차종별로 ▲K5(HEV포함) 최대 7% ▲카니발(카니발 하이리무진포함) 최대 7% ▲봉고EV 최대 300만원 할인된다.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인 ‘EV 세일 페스타’의 혜택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강화한다. ▲EV6 최대 420만원 ▲니로EV ▲니로 플러스 최대 700만원 할인된다.

기아가 진행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역시 지난 1일부터 한정 수량 6000대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전기차의 경우 선착순 6천 대와 별도로 ‘EV 세일 페스타’ 종료 시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봉고 EV는 제외다.

이밖에 기아는 이달 한 달 간 기아 전시장에 방문

하는 고객들에게 친환경 경품 및 예약금 지원 쿠폰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KG모빌리티·르노코리아·쉐보레도 ‘코세페’ 동참=KG모빌리티는 행사 기간 차량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소모품 교체, 수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더 뉴 티볼리(에어 포함) 구매 시에는 최대 300만 포인트, 코란도·토레스 구매 시에는 최대 50만 포인트, 렉스턴 뉴 아레나 구매 시는 최대 200만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르노코리아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주요 모델인 2024년형 QM6, XM3, SM6 TCe 300 등을 최대 210~440만원까지 할인 판매할 방침이다. 고객 선호에 따라 특별 할인을 미리 적용받아 현금 또는 할부로 구매하거나, 0.9% 초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쉐보레도 11월 ‘쉐비 빅 페스타(CHEVY BIG FESTA)’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동참을 알렸다.

쉐보레는 이달 상품경 개선 등을 통해 새롭게 출시한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2개월 무이자 할부(선수율 10%) 혜택을 제공한다. 또 5.0%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5.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특별 할부 혜택(선



수율 20%)을 제공한다.

또 브랜드의 글로벌 핵심 판매 차종인 트레버스, 콜로라도, 타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시불 구매 시 차량 금액의 8~12% 지원 ▲콤보할부 프로그램(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방식) 선택 시 최대 500만원 지원 및 4.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5.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 할부 ▲‘무이자+콤보할부’ 프로그램 선택 시 최대 400만원 지원 및 선수금 없이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 ▲차종별 선수율(트레버스, 콜로라도 선수율 30%, 타호 선수율 40%)에 따라 36개월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기차 판매 ‘반토막’...수입차 ‘급브레이크’

전기차 51.4% 급감에 수입차 2만1329대 등록...15.9% 줄어

지난 10월 수입차 판매량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줄었다. 특히 전기차 판매량이 50% 넘게 감소하며 전체 판매량을 끌어내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10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작년 같은 달(2만5363대)보다 15.9% 감소한 2만1329대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전월(2만2565대)보다는 5.5% 줄었다.

KAIDA 측은 “일부 브랜드의 신차 출시에 따른 재고 소진과 몰락 부족이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경

기 침체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됐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수입차가 사치재라는 인식이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의 여파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브랜드별 등록 순위(테슬라 제외)에서는 벤츠가 6612대로 BMW(5985대)를 제치고 전월에 이어 석 달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볼보(1263대), 아우디(1151대), 렉서스(963대), 폭스바겐(853대) 등이 뒤를 이었다. 연료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가솔린(9790대), 하

이브리드(7099대), 전기(2357대), 디젤(1556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527대) 순으로 팔렸다.

특히 전기차 소비 둔화에 따라 전기차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1.4% 급감했다. 경기 침체 속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 가격에 충전 인프라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매 점유율은 11.1%로, 디젤(7.3%)을 앞섰다.

차종별로는 벤츠 E-클래스가 3578대가 팔리면서 지난달에 이어 베스트셀링 모델에 올랐다.

이어 BMW 3시리즈(976대), BMW 5시리즈(758대), 렉서스 ES(529대), BMW X7(501대)이 2~5위를 차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더 기아 레이 EV’ 카셰어링으로 만난다

기아-쏘카 공유 서비스 실시

기아와 쏘카는 전국의 쏘카 공유차량 대여지점인 쏘카존에 ‘더 기아 레이 EV’를 배치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레이 EV는 기아의 도심형 엔트리 EV로 우수한 상품성과 함께 사업자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서비스에서 레이 EV 4인승 승용 모델의 에어(Air) 트림이 운영된다. 에어 트림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운전석 폴딩 시트, 운전석 통풍시트 등 각종 편의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운영 모델은 선택 품목인 드라이브 와이즈 II도 추가돼 고객들이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와 같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쏘카 앱을 통해

용해 쏘카존에서 직접 대여하거나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호출하는 부류 서비스를 사용하고 결제하면 된다.

기아는 쏘카 대여 가능 차량에 레이 EV 투입을 기념해 쏘카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레이 EV 5시간 무료 시승 쿠폰’을 증정한다. 쿠폰은 쏘카 애플리케이션 레이 EV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쏘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레이 EV 5시간 무료 시승 쿠폰을 사용한 고객이 레이 EV 시승경험 서비스에 참여하면 커피 교환권(100% 증정)을 제공한다.

기아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쏘카를 활용해 레이 EV의 차급을 뛰어넘는 상품성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부담 없이 기아의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현대차 ‘2024년 1학기 미래모빌리티학교’ 모집

24일까지...자유학기제 특화 진로교육·창의적 체험활동 구성

현대자동차가 ‘2024년 1학기 미래모빌리티학교’를 모집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선다.

현대차는 오는 24일까지 ‘미래모빌리티학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미래모빌리티학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수업으로 구성된다.

현대차는 2016년 민간기업 최초로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자동차학교를 시작해 올해까지 전국 2200개 초·중학교, 약 5만7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쉽고 재미있게 구성된 자동차의 공학적 원리부터 미래 모빌리티까지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해 교육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부터 프로그램 이름을 ‘미래모빌리티학교’로 변경하고, 미래 모빌리티 연관 산업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클린 모빌리티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모빌리티 개념을 다루며, 성장 세대 눈높이에 맞춰 동아리활동 및 방과

후 학습에도 응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이 제공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체험, 모빌리티 업사이클링, 미래도시 기획하기 및 클레이 체험 등의 교육 보조 자료들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업은 중학생 대상 정규 및 단기 프로그램과 초등학생 대상 초등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중등 정규 프로그램은 ▲‘클린 모빌리티로 누리는 스마트시티 라이프’를 주제로 진행되며, 중등 단기 프로그램은 ▲‘간간 중심 미래 스마트 시티’, 초등 프로그램은 ▲‘모빌리티가 만드는 미래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진행된다.

올해 2학기부터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및 교육부와 협업해 아세안 국가의 교육 교류를 지원해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파견되는 국내 교사들에게 미래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친환경과 지속가능성, 미래 모빌리티, 미래 도시 등을 주제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2024년도에는 필리핀, 태국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성장 세대 눈높이에 맞춰 동아리활동 및 방과



진화하는 ‘K5’...세단 경쟁 거세진다

기아 ‘더 뉴 K5’ 출시...4년만에 부분변경 모델

기아가 ‘더 뉴 K5’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K5는 지난 2019년 출시한 3세대 K5의 상품성 개선 모델로, 미래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 사양을 적용해 더 높은 상품성을 갖춘 게 특징이다.

6일 기아에 따르면 K5의 디자인은 기아의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의 ‘미래를 향한 혁신적 시도’(Power to Progress)를 반영, 기존 K5가 가진 정통성과 역동성을 계승하면서도 혁신을 더했다.

기아는 ‘스타램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주행등(DRL)으로 전면부에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연출했으며, 차폭과 입체감을 강조하는 스타램 라이팅 리어 콤팩테이션 램프를 후면부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더 강렬하고 존재감 있는 외장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K5의 실내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가 적용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공조 전환 조작계’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수평 지향적인 요소가 적용됐다.

기아는 K5에 전·후륜 서스펜션 특성 및 소재 최적화로 민첩한 주행성능과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 차체와 앞유리 접합부 소재 보강 및 전·후륜 멤버 최적화로 로드 노이즈를 줄였다. 또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으로 정숙성을 높였다.

기아는 SDV 기반의 소프트웨어 경험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무선(OTA, Over the 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영상, 음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플러스’를 K5에 적용했다.

이밖에 ▲기아 디지털 키 2 ▲빌트인 캠 2 ▲e hi-pass(하이패스) ▲지문 인증 시스템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트렁크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에어컨 애프터 블로우 ▲뒷좌석 6:4 폴딩 시트 ▲측방 주차 거리 경고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대거 탑재해 상품성을 높였다.

기아는 K5의 트림을 고객 선호도를 반영해 기존의 기본 트림 트렌디를 제외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3개로 최적화 운영한다.

K5 가격은 2.0 가솔린 모델 프레스티지 2784만원, 노블레스 3135만원, 시그니처 3447만원이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같은 트림별로 2868만원, 3259만원, 3526만원이다.

2.0 가솔린 하이브리드(친환경차 세제혜택 전) 역시 트림별 3326만원, 3662만원, 3954만원으로, 2.0 LPi는 2853만원, 3214만원, 3462만원이다.

기아는 K5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종이 완료되는 시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혜택이 적용된 가격을 공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K5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강렬하고 감각적이며 새로움을 상징하는 세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K5는 고객의 일상을 영감의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K5 브랜드에 대해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